

광주·전남 신천지 3.6만명 전수조사 진행

1400명 동원 전화문진... 통화 안되면 경찰과 소재 파악

신도 대상 직업·건강상태 점검
본인 외 가족 등 증상자 여부 확인
“방문조사해야” 전화 한계 지적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확진 환자 접촉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전국 신도 명단을 토대로 광주시도 지역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9시 본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1400여명을 동원해 전화 문진을 시작했다.

통보된 명단은 2만2880명으로 시가 애초 파악한 2만6715명보다 약 4000명 적다.

전남도도 1만3597명의 도내 신천지



27일 오전 광주시 공무원들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토대로 증상 유무 등 확인 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인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시군별 교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순천이 6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목포가 각각 3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지자체 공무원 600명이 동원돼 1인당 20~30명의 교인을 맡아 전화로 본인 확인과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인적 사항 등 본인 확인

을 한 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근무자 등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16일 전후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광주 확진자가 거쳐 간 남구 주월동·월산동 교육 센터에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질문 뒤에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발열, 기침, 목 아픔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통

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곧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게 한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중 통화가 연결된 대상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결과 확인과 함께 2차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본인 진술에만 의존한 소극적 전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 수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적고 교육생이 명단에서 빠진 점도 전수 조사의 신뢰도나 완결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있다.

확인 대상자들이 수신하지 않는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전화에서 위험 지역 방문, 확진자 접촉 사실, 증상 발현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확인된 대상만이라도 방문 조사를 통해 가족까지 발열 등 증상 측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은 기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증상자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신천지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전남=양수녕 ts7080@metroseoul.co.kr

광양시, 내달 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조정 “장성을 하나로”... ‘청운지하차도’ 조기 착수

광양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돼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노선 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이 가능한 일부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태인동 방면에 대해 종전 44회에서 13회로 감회된 88번 노선을 13회에서 18회로 5회 증회한다.

중마동 순환버스 1000번, 1001번은 길호 상가 내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12번 노선은 옥곡면 장동마을을 경유해 운행한다. 35-1번 노선은 다압면 동동마을을 1일 2회 경유한다.

또한, 옥곡면 백암 마을 32번 노선은 3회에서 4회로 1회 증회하고, 11-2번 노선은 중마 터미널에서 22:00~22:40에 3회 증회 운행해 중마동에서 광양읍 방향의 막차 시간을 늦췄다.

아울러 광양읍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87번의 2회차, 3회차 노선은 창덕 A 단지를 경유하게 된다.

옥곡에서 진월로 운행하는 34번 노선은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폐지하고 진월면 일부 구덕, 신덕, 신기, 구동 4개 마을은 100원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부 조정된 개편 내용을 읍면동과 SNS, 버스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 공시사항, 생활정보(교통 정보)에 게시하고 버스승강장에도 운행 노선도를 제작 부착해 시민 홍보에 나선다.

정하중 교통과장은 “이번 시내버스 일부 노선 개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노선 개편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편을 겪고 있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 조정이 가능한 일부 지역의 노선을 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jia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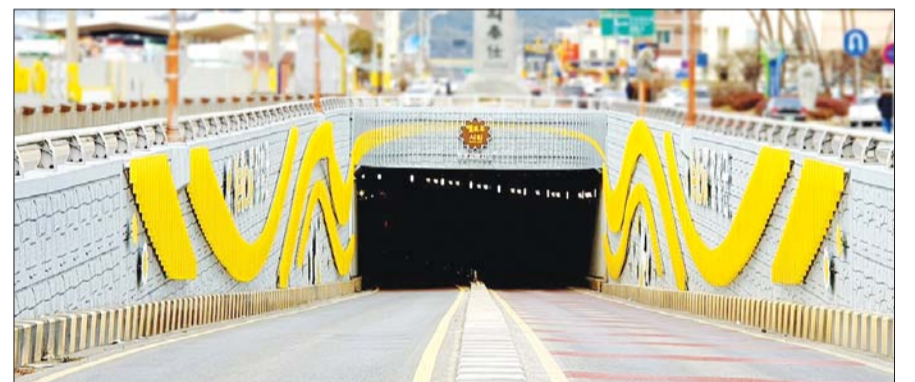
장성군 국토부-철도시설공단 협의 ‘철도하부 통과구간 확장사업’ 선정

호남고속철도 개설 이후 동·서부로 나뉜 전남 장성군을 하나로 이어 줄 ‘청운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협의 결과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철도하부 통과 구간 확장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오는 3월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철도통과 구간 국비 지원율과 사업추진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성군은 도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호남선철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장성역 지하차도’를 개설했다. 하지만 장성 서부권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부 지역을 잇는 추가적



장성역 지하차도.

/장성군

인 교통시설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여기에 노후화 된 기존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오자 시설 보강과 대체 지하차도 개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숙원을 해소해 줄 새로운 ‘청운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장성읍 서부지구는 복합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예술회관과 군립중앙도서관, 홍길동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 연

말 준공 예정인 장성공설운동장도 원활하게 연결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호남선 철도는 장성의 도시 확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청운지하차도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효과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상주시, ‘꽃 생활문화 운동’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화훼농가 도움

상주시가 ‘꽃 생활문화 운동’에 나선다.

확산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다소 어두운 시청과 읍면동·사업소의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도 도우려는 것이다.

시는 3월부터 각 부서가 농업정책과로 꽃다발을 신청하면 월 2회 화훼 농가가 직접 지정 사무실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꽃다발 하나에 1만원이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꽃이 있는 가정의 날’ 이벤트를 실시해 공무원

들이 저렴한 가격(8000원)에 꽃다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주시 화훼농가는 총 38호로(13.4ha) 프리지아, 백합, 라시안셔스, 스토크, 글라디올러스 등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대부분 화훼공판장으로 유통한다. 또한 일부 화분에 심어 재배하는 선인장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 총 62t(9억5000만원)을 수출하기도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개인의 정서 안정과 밝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보성군 3개 기업 농공단지 입주

투자규모 126억·지역 일자리 창출

보성군은 27일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로 보성군은 관내 농공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친환경 생분해 필름을 생산하는 ㈜진성 바이오를 비롯해 3개 제조기업이 조성농공단지에 동지를 튼다. 투자 규모는 약 126억 원 규모이며, 40여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군은 민선 7기 들어 8년 넘게 미분양으로 있었던 조성 농공단지에 350억 원 가까운 투자를 이끌어냈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6 | 해질 / 18:24

2월 28일 (금)
음력 : 2월 5일

수도권 날씨
3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예측치): 연천 0/6, 동두천 1/7, 가평 -2/5, 파주 -1/6, 서울 3/7, 양평 0/6, 용인 4/6, 수원 4/6, 평택 2/7, 인천 4/7, 백령도 3/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